

음식과 수행

양념치킨에 숨은 우리민족 창의력

외국 문화가 우리나라 유입 후 더욱 발전하는 것 우리 민족 창의력 뛰어남 입증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선수촌 근처에 앓을 틈이 없이 북적대고 있는 음식점이 있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치킨집이라고 한다. 외국 선수들과 스태프들로 꽉꽉 차 있으며 1인 1닭은 기본으로 먹는다고 한다.

평창 선수촌 치킨집 대박

치킨은 원래 서양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미국 남부 켄터키주가 원조다. 그런데 외국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우리나라의 치킨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양념에 그 비결이 있다고 한다. 외국의 치킨은 부위별로 나오거나 굵은 정도이고 또 소스도 약간 때운 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치킨은 후라이드의 경우 눅눅가루로 입혀서 기름으로 튀기는 것이 특징이고 양념치킨의 경우 그 소스의 맛은 매운 맛과 단 맛이 공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 언뜻 생각하기에 외국인들이 매운 맛을 싫어할 것 같지만 그들에게 친숙한 치킨이다 보니 우리나라의 치킨을 한 번 먹게 되면 매콤한 맛에 어느덧 중독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념치킨에 빠질 수 없는 달짝지근한 무도 한몫을 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외국의 음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한민족 특유의 것으로 변해버리는 현상은 비단 음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pop(케이팝) 즉, 코리아 음파도 그렇다. 케이팝이란 우리 대중가요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게 된 후에 케이팝이라는 명칭으로 해외 국가에서 자리 잡게 된 것을 말한다. 케이팝이 전 세계적인 팬 층을 확보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서양의 사운드에 아시아인의 퍼포먼스(소위 말하는 칼군무와 어려운 안무 동작들)

를 기가 막히게 결합시켰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외국의 치킨이 우리나라의 양념치킨이 되고 또 서양의 사운드에 한국인의 퍼포먼스를 결합시키는 행위들은 우리 한민족의 창의력이 발현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타문화 융합 발전의 비밀

이것 외에도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종교적인 부분이다. 기독교, 불교, 유교가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에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어찌된 영문인지 변형하여 그 종교가 발생한 종주국보다 더 빨리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온 종교가 한국에 상륙하기만 하면 얼마 후 몇 사람의 추종자가 생겨 곧 뿌리를 내리고 정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한국이야말로 만국종교 박람회이다.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섞여 있어.” 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이렇게 종교가 다양하다면 벌써 종교 전쟁이 나서 앓을 먹었을 텐데 우리 민족은 남을 비판하는 그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방과 비판은 사실 다른 것이지만 비판 같은 것도 비방처럼 들리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교가 서로 다투지 않고 공존하고 있는 것은 경이로운 사실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더욱 발전을 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창의력이 뛰어남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의 직계자손임을 언연 중에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승우 기자



이긴자 일대기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12회>

한 청년의 올바른 생각이 많은 사람의 죽음 막을 수 있었다

2월: 6.25전쟁 중에 있었던 무서운 연단

- 6) 총살당하다
- 7) 토굴생활
- 가. 목사말 이양숙
- 나. 한달 간의 토굴생활
- 8) 대동군 치안대장으로 추대되다
- 가. 인민군 포로를 못 죽이게 함
- 나. 인민군 특공대 200명을 생포함
- 9) 신앙리 형무소에 재수감되다
- 10) 인고의 나날들
- 11) 거제도 포로수용소 생활
- 12) 반공포로를 석방하라
- 13) 석방 후 그라운 고향으로

7) 토굴생활

나. 한 달 간의 토굴생활

이양숙은 티도 없이 맑은 음성에다가 희디흰 얼굴을 한 일곱째 천사를 데리고 마당 끝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땀싸리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을 당기니 그 속에 토굴이 있었습니다. 공산치하에서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이 집 식구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굴속에는 요와 이불, 등잔불, 책상 등과 불세비기 당사(黨史)등 공산 이념 서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굴속에 있는 동안 공산 이념 서적들을 모조리 독파한 후 공산주의는 얼마 못 갈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부유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못 가진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니 처음에는 공산주의를 좋아할지 모르지라도 노력 없이 얻은 것은 소중히 간직하지도 못할 뿐더러 밤잠 안 자고 땀 흘려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빼앗기니 능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들도 구태여 힘써 일할 필요성을 못 느껴 일을 게을리 하게 되므로 이런 사회는 날이 갈수록 폐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후 일곱째 천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모순을 논리적으로 설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민주 진영으로 전향시켰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토굴 안에서 한 달 가량 생활하는 동안 이양숙이란 처녀는 매일 밤 12시만 되면 도시락 두 개씩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녀는 일곱째 천사가 서울 사람이라 고무마를 못 먹는 줄 알고 비밀리에 교인들에게 연락하여 자기들도 잘 못 먹는 귀한 쌀을 조금씩 모아서 밥을 해오는데, 이는 보통 정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아는 일곱째 천사는 그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절반 정도 먹고 도로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락이 들어올 때마다 그날 그날의 전황을 쪽지에 적어 같이 보내왔습니다. '지금 아군이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아군이 지금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지금 아군이 38선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굴속에 있으면서도 9.15 인천상륙과 9.18 서울수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38선을 지나 지금 평양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평양을 점령할 것입니다' 라고 하더니, 나중에 '평양을 점령했습니다' 라는 쪽지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때 일곱째 천사는 '이제 집으로 갈 수 있게 됐구나!' 하고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평양 점령 소식을 전해들은 그 다음날, 토굴 문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기에 몹시 긴장을 하였습니다. '혹시 후퇴하다 돌아온 인민군들이 아닐까?' 하고 불안하였는데, 누군가가 토굴 문이라고 할 수 있는 땀싸리 나무를 제치더니 굵직한 목소리로 '동지! 동지! 해방됐어요! 이제 나오시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떡은 누구 삼니까?" 하고 일곱째 천사가 묻자, "내래 빨갱이 놈들하고 싸우느라 산속에 들어가 있던 김명식이외다. 조동지 나오시라요."라고 화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알았다' 고 하면서 굴속에서 나와 보니, 집집마다 태극기가 달려 있고 인민군이 개미떼처럼 새까맣게 북쪽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평

양에서 30리 떨어진 대동군 부산면 용곡리는 아직 국군에 의해 점령당하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숨어 있던 반공청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용곡리 도로에는 인민군들이 줄지어 북으로 올라가고 있었지만 총 하나 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일곱째 천사는, '이! 군대라는 것은 사기가 떨어지면 완전히 죽은 것이나 한 가지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기가 죽으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이치도 터득하였던 것입니다.

8) 대동군 치안대장으로 추대되다

가. 인민군 포로를 못 죽이게 함

이씨 성을 가진 목사 집의 토굴에서 한 달 동안 있다가 나오니, 일곱째 천사의 모발은 더욱 길어졌고 구레나룻수염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어 누가 보아도 20대 청년으로 보이지 않고 30대 후반의 장년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대동군 내에 있는 젊은 반공 청년들이 치안대를 조직하였는데, 그들이 일곱째 천사에게 치안대장을 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나는 서울에서 공부하던 대학생으로서 나이도 어리니, 나이를 지긋이 잡수신 어른께서 대장을 맡아주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면서 극구 사양하였으나, 그들은 "우리는 배우지도 못하였고, 조동지는 대학생으로서 이남에서 끌려와서 총살까지 당했으니가 애국자 중에 애국자요, 조동지야말로 빨갱이 때려잡는데 적임자니 탄발 말고 치안대장을 하시오." 하며 억지로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천사는 반공청년 30여 명을 데리고 대동군 치안대를 이끌고 인민군 패잔병과 좌익에 물든 청년들을 생포하여 미군부대에 포로로 인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치안대원들은 인민군을 포로로 잡기만 하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곱째 천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도 뼈아프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쉽게 명예 '살인하지 말라' 고 한 율법을 어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안대원들을 모아놓고 입장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교인이라는 티를 내지 않는 가운데 에둘러 같은 동포끼리 서로 죽이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본사람들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혹독한 학대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 해방을 맞아 독립 국가를 세운 지 몇 년 되었다고 동족끼리 싸우고 죽여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먼 훗날 치욕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몇몇 위정자들에게 의해서 우리가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 없으니 우리들만이라도 서로 죽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사상이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은 사상만 바로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천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웅변하니, 대부분의 치안대원들이 감격하여 '맞소, 조동지 말이 맞소.' 하면서 찬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한 사람의 청년이 바로 썼을 때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실감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자는 일곱째 천사의 제안에, 삼분의 이 정도의 대원은 수긍을 하며 호응하는데 나머지 대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안(案)은 다수결로 통과되었는데, 삼분의 일 정도의 대원들은 '이 빨갱이 놈은 악질 중의 악질로서 우리 부모를 죽이고 형제자매를 무참히 학살하고 죽였기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며 잡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여 그 때마다 치안대장인 일곱째 천사가 말려서 죽을 사람이 죽음을 모면하고 형무소로 넘겨진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한수

한반도 평화 위한 세계인의 따뜻한 마음 모아져야

질병과 관련된 재앙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 재앙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를 보면, 열 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첫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둘째 개구리 떼의 재앙, 셋째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 넷째 파리 떼의 재앙, 다섯째 가축들의 들림병 재앙, 여섯째 가축과 사람에게 발병한 악성 종기 재앙, 일곱째 불덩어리와 우박의 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 떼의 재앙, 아홉 번째 3일간의 암흑의 재앙, 열 번째 먼저 난 가축들과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다. 특히 열 가지 재앙 가운데 질병과 관련된 재앙(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 재앙(일곱째와 아홉 번째 재앙)은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얼마 전만 해도 사스(SARS)와 에볼라와 같은 질병이 인류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떨게 하였고 지금은 동물에 서식하는 바이러스가 다시 인간으로 옮겨지는 돼지독감과 같은 독감의 변종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새해 들어 홍콩독감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일본에서

는 독감이 대유행하여 27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상이변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 재앙이 지구촌 각지에서 기승을 부렸다. 작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5.8의 경주지진이 있을 지 일 년 만에 잇따라 발생하여 우리나라도 지진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그밖에 올 초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의 기온이 영하 38도, 체감기온은 영하 70도까지 떨어지는 살인한파가 찾아왔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안휘성, 호북성, 강소성, 산서성, 하남성 등 5개 성에서 56만 7000명이 폭설 피해를 입었다. 현재 한반도는 입춘 한파가 절정을 이루고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파는 인간의 심리적인 요인과 무관치 않다

과학자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는 역할을 하는 제트기류가 약해지게 되고 그 결과로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해해 북미나 동아시아 지역에 한파를 몰고 오는 것



포항과 경주 지진, 필리핀 마을 화산과 일본 군마현 화산, 홍콩과 일본 독감, 중국과 미국 북동부 그리고 한국 강릉 폭설, 대관절 무손 연관있다

이라고 한다.

그런데 겨울철 한파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인간의 심리적인 요인과 무관치 않다는 점이다. 가령 입시철의 '수능한파'가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담당교사 등 수능을 격정하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초긴장상태에 돌입함으로써 마음이 얼어붙어 그 여파로 주변 세상에 강추위로 풍공어는 것이다. 요즘에는 내신의 비중이 커지

면서 수능당일 사람들의 긴장감이 누그러짐으로써 수능한파도 예전 같이 뜨겁지 않지만, 수능의 비중이 컸던 때에는 아무리 수능 날을 빨리 잡아도 수능 당일은 어김없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추위로 떨어야 했다.

이러한 마음(영)의 법칙에 의해서 보면 한반도의 급랭한 정세가 곧 세계를 풍공 얼어붙게 한 요인이기에, 현재 지구상의 혹한의 기상 재앙과 독감의 재

앙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인의 따뜻한 마음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오염된 공기를 맑히는 감로이슬

오늘날 자동차 배기가스와 미세먼지가 공해의 주범으로 호흡기 질환과 암을 유발한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욕심을 부리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 몸에서 방사되는 독소 물질로 인하여 공기가 심하게 오염되고 그 오염된 공기에서 치명적인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난다고 한다. 그래서 구세주께서 미국으로 간다든지 할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 땅 위에 공기를 맑힐 목적으로 간다고 하셨다. 공기가 왜 맑혀지냐 하면 공기 속의 마귀를 감로이슬성신의 무기로 전부 죽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각이 곧 영이요 신이고로 생각하는 대로 사람의 몸속에서는 하나님의 빛과 마귀의 방사물질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죄인의 몸속에서는 마귀의 물질이 훨씬 더 많이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공기는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는 것이다. 이긴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1992년도에 이 세상은 사망의 물질로 완전히 오염되어 불바다

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지구 땅 위에는 생명체라곤 하나도 없는 불모지로 화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멸망의 기한을 불과 12년 앞두고 이긴자가 나왔으니 참으로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존재를 여지없이 멸하고 계신 고로 마귀의 예정과 정해진 계략이 자꾸 어긋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마귀의 예언은 자꾸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훌륭한 예언가들의 말이 요새 와서는 잘 맞지 않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렇게 잘 맞았던 자들이 요새 와서는 예언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 변화법칙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엔 일기예보도 잘 맞지 않는 것이다. 과거에 적용되던 마귀의 변화법칙이 바뀌어 하나님의 변화법칙으로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자들도 앞으로는 승리제단에 와서 기초부터 새로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이론도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1990년 10월 7일자 승리신문 제168호 기사 인용).*

박태선 기자